

5월의 사양관리

— 축산기술연구소 —

일반 사양관리

정 예사로 급여가 시작되는 시기로 호맥청예를 갑자기 많이 주거나 방목을 오래 하면 고창증 및 소화기 장애로 인해 설사를 일으키므로 급여량을 서서히 늘려 주어야 한다.

계절적인 청예급여 및 따뜻한 기후로 우유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므로 산유량이 늘어나고 채식량이 증가하나, 유지율이 떨어지고 젖소가 에너지 섭취가 부족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료급여량만을 증가시키는데 그치지 말고 사양표준을 다시 검토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조정해 준다.

착유우는 순간적인 고온스트레스가 산유능력 및 번식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더위에 대비하여 축사 환기시설, 보완 및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한다.

지난 여름을 지나며 수정된 임신우들이 분만을 하고 있다. 분만초기에는 송아지 설사가 없다가 송아지방에 몇 마리 거치면서 많은 설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 송아지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 및 건조를 철저히 한 후 새로운 송아지를 입식시키도록 한다.

모든 우유 집유회사가 잉여원유차등가격제 및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사료값 등을 고려하여 저능력우와 번식장애 및 체세포수가 높은 개체는 낙농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신속히 도태시키도록 한다.

사양관리

물 섭취량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급수원의 물공급량이 충분한지 조사하고 산유량이나 번식성적이 저하되는 원인이 수질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든 낙농가 겪고 있는 양질의 조사료 문제로 저질조사료도 접근 방법에 따라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열악한 저질 조사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트펠프, 대두피, 감귤박 같은 용해성 섬유소를 혼합하여 급여함으로써 반추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게되고 전분이나 당을 급여할 때처럼 반추위를 산성으로 만들지는 않는 좋은 잇점이 있다. 반추위내 용해성 섬유소와 조사료의 섬유소(NDF)를 같이 급여하면 섬유소 분해 박테리아에 의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전분을 추가로 급여하지 않고 용해성 섬유소를 급여하면 위내 산도의 조절이 용이하다.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산도를 조절하면 미생물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된다. 또한 산독증의 조절, 위내 미생물 생성 강화, 소화가 안되는 조사료 섬유소의 교체와 함께 소화가 잘 되는 용해성 섬유소를 급여하면 사료 섭취량이 늘어나고 유량이 증가한다.

구 제역 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매우 다양하여 바람, 철새 등에 의해서도 옮겨질 수 있고, 구제역 발생국의 축산물에 밀수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가들에게서 계속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까닭에 구제역이 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매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축사 내부 및 주변, 출입차량, 장화, 작업복, 작업도구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해야한다.

또한 예방접종도 실시하여야 한다. 유행열, 아까바네, 기종저, 탄저 등의 백신을 하지 않은 개체는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신생송아지관리는 환경과 어미소로부터 질병을 차단하고 병원균보다 먼저 양질의 초유가 체내에 흡수되도록 하여 건강한 송아지를 만들어야한다. 분만과 동시에 어미로부터 분리하고 온수(약30℃)에 깨끗이 닦고 마른 타월로 콧구멍 속의 양수와 물기를 말린다. 송아지의 배꼽은 5cm 정도로 잘라주고 강옥도를 가지고 충분히 뿌려준다. 체중을 측정 후 분만시 처음 착유한 냉동된 초유를 녹여서 빠른 시간 이내에 급여한다. 초유의 급여량은 1.25~2.5kg 급여가능(체중의 5%)하다. 냉동 초유는 온수로 39℃ 까지 따뜻하게 하여 급여하고 분만후 24시간 동안 3-4회까지 초유를 급여할 수 있다.

분만당일 가능한 빠른 시간으로 착유하여 급여 후 남은 초유를 냉동보관 하였다가 이후 필요시 2-3일간 녹여서 급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출생시간이 지나면서 흡수율 떨어지므로 빠른 시간에 먹인다. 냉동된 초유는 따뜻한 물로 해동해야 면역 단백질이 파괴되지 않는다. 분만후 4-5일 동안에 생산되는 초유 중 남은 것은 전유 또는 대용유로 대신에 송아지에 먹일 수 있다.

호 맥 및 연맥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건초와 사일리지 시기를 정하고 옥수수 파종이 늦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한다. 여러 가지 기상여건으로 가뭄과 같은 기상변이 생길지 모르므로 조금 빠르게 파종하는 것이 좋다. 토양에 수분이 부족한 시기에는 깊게 파종한 후 롤러로 진압을 해서 가뭄피해를 줄여야 한다.

호맥은 빨리 수확하여 건초나 사일리지를 만들고 옥수수를 후작으로 파종시 하루라도 빨리 파종을 완료하여 수확량을 높인다.

옥수수 및 수단그라스는 파종후 3~5일 이내에 잡초우점을 방제하기 위하여 ha당 라쏘 3,000ml + 싸마진 1,000ml를 물 1,200 l 에 풀어서 전면 살포한다.

옥수수 추비시에는 옥수수 앞에 이슬이나 물기가 없을 때 포기에서 10~15cm 떨어진 곳에 포기마다 주되 잎이나 생장점에 비료가 닿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목초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목구의 크기를 정하여 방목을 실시하되 처음부터 과방목이 되지 않도록 자주 옮겨준다.

5월과 6월중에는 멸강나방 방제를 위하여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필자연락처/(041)580-3384